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020. 8, 제18권, 제3호, pp. 1~16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2020. 8, Vol. 18, No. 3, pp. 1~16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김진세(고려대학교 겸임교수) · 김대희*(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I. 서론

심판은 운동경기에서 승패와 관련된 판정을 하는 자로, 오늘날 세계평화와 스포츠정신을 구현하는 장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가 간의 경기에서 심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김상겸, 2014). 이와 관련하여 2012년 런던하계올림픽대회 펜싱 에페 개인전 준결승에서 신아람 선수는 '1초의 오심'으로 분패하였고, 남자 유도 66kg급에 출전한 조준호 선수는 8강전에서 '판정 번복'으로 동메달 수상에 만족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대회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에 참가한 김연아 선수는 프리스케이팅 부문에서 무결점 연기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편파 판정'으로 은메달을 획득하는 데 그쳤다. 당시 은메달 수상이 확정된 이후, 외신들까지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은 '도둑맞았다'라고 표현하였다.

우리나라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이를 발판으로 세계 10대 스포츠강국의 반열에 오

를 수 있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아낌없이 각종 지원을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 10대 스포츠강국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서 유독 우리나라의 종목별 국가대표 선수들이 외국심판의 '편파 판정'이나 '오심'으로 인해 희생양이 되곤 했다.

이처럼 국제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외국심판의 편파 판정이나 오심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국제심판 자격취득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 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국제심판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참가지원과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참가지원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 국제심판을 대상으로 국제심판 자격취득, 유지, 승급을 위한 해외강습회 참가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종목별 국제심판 자격 취득인원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일부 종목은 승급체계(1~3급)를 두고 있어 국제심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왔다. 아울러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은

핵심어: 국제심판, 국제심판 양성사업
* e-mail: wave@kspo.or.kr

2015년부터 개설되어 글로벌 역량 개발, 수준별 외국어 교육, 국내외 현장실습 등 국내심판의 자격취득, 국제심판 자격취득자의 심판자격 유지 및 승급에 맞춰 실무중심 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국제심판 자격취득자, 교육수료생 성과사례로 일부 국제심판은 2016년 리우하계올림픽대회,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 심판에 배정되었고, 국제체조연맹 기술위원, 국제탁구연맹 심판위원장에도 진출하여 국제경기대회에서 한국인 심판의 영향력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20a).

그러나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 할 난관이 여전히 남아있다. 국제심판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국내심판과 국제심판 자격유지, 승급이 목적인 국제심판 자격취득자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국가예산과 행정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심판 양성사업 예산(3억 원)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제심판 양성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20b).

또한 본 사업의 국가예산 지원과 관련한 부정적인 시각도 걸림돌이다. 국제심판 자격취득 동기요인에 있어 우리나라는 은퇴선수나 지도자가 새로운 경력으로서 심판을 택하거나, 국내심판이면서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하여 해당 종목단체에서 본인의 입지나 영향력을 강화하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김미숙, 2014). 이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스포츠 선진국에서 국제심판활동을 사회에 봉사하고, 다양한 국가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다른 나라 심판과의 친목 및 사교의 장으로 심판을

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즉, 스포츠 선진국처럼 국제심판 양성은 국가 주도가 아니라 개인 자율에 맡기고 국가 차원의 지원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지금까지 스포츠경기의 심판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연구의 대부분이 종목별 심판관정이나 심판교육의 문제(박찬혁, 정민규, 윤호천, 2004; 문원재, 정국현, 2005; 이학준, 2006; 정현도, 2011; 김상겸, 문재태, 2014), 종목별 상임심판 운영실태(김미숙, 김일광, 전상완 2017; 김미숙, 전상완, 2019), 종목별 심판양성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방열, 2004; 조지음, 신재휴, 2014; 장연환, 박정근, 2016; 이재봉, 2017; 김형환, 양대승, 심영근, 2018; 홍선희, 하숙례, 2018) 등이 중심이 되어 왔다. 반면 국제심판 양성사업이나 양성체계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국제심판 양성방안 연구(김미숙, 2014)가 현재까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문제점으로 국제심판 양성 관련 전략적 접근 부족, 국제심판의 양적·질적 증대 미흡, 국제심판 양성효과에 대한 검증미비, 국제심판 양성 컨트롤타워 부재 및 홍보·사후관리 미비를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볼 때, 국제심판 양성사업과 관련한 학문적 시도와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국제심판 양성사업이 지난 10년간 추진되어 온 만큼 현행 양성제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사업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그동안에는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서 선수의 경기력이 스포츠 국력의 잣대였다면 앞으로는 스포츠의 국제화에 따라 국제스포츠인재 양성을 통한 스포츠 외교력이 국

력을 가늠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제스포츠인재양성의 방편으로 은퇴선수가 진로개발 차원에서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새로운 경력유형이자 일자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며(김진세, 안재한, 김미숙, 2017) 이는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당위적인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행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심판 양성사업과 관련한 문헌조사, 전문가 집단 인터뷰, 교육생 설문조사를 통해 본 사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제심판 양성사업은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지원과 역량강화 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본 사업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을 위해 문헌조사, 전문가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교육생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다.

1. 문헌조사

본 연구는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탐색을 위해 각종 문헌들을 고찰

하였다.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경우 체육인재육성재단이 2009년부터 동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2016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통합된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체육인재육성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보유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국제심판 양성사업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는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담당자를 통해 1차 자료(raw data)를 받아 종목별, 연도별 정리 및 집적 과정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2019)의 2017 체육백서, 국민체육진흥공단(2020)의 종합업무현황에 나타난 공식 통계자료와 면밀하게 대사하였다. 특히 국제심판 자격 취득, 유지, 승급인원과 국제심판 역량강화 종목별 교육인원 통계 수치는 전술한 공식 통계자료에 제시되지 않아 사업담당자로부터 1차 자료를 받아 세부적으로 집계한 후 사업담당자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검증하였다. 이외에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연도별 사업계획서(예산 포함), 해외강습회 지원 및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한 각종 자료 등을 수집하여 검토 및 분석을 병행하였다.

2. 전문가 집단 인터뷰(FGI)

전문가 집단 인터뷰를 위해서 국제심판 자격 취득자 및 종목별 국제심판 관련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국제심판은 종목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국제심판이 많이 배출된 종목을 위주로 섭외하였으며, 국제심판은 종목단체에서 상주하여 근무하는 형태가 아닌 관계로 인터뷰 날짜는 최대한 다수의

참석이 가능한 일자를 선택하였다. 인터뷰는 2019년 1월 8일과 1월 10일 이틀에 걸쳐 오후 시간에 진행하였으며, 심층 면접기법을 활용한 그룹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주요내용은 국제심판 양성 시 필수요소 및 지원내용, 국제심판 역량강화 및 개선에 대한 요청사항, 국제심판 양성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등이다.

3. 교육생 설문조사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설문조사는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의 효과성 측정을 목적으로 2019년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자 356명 중 151명이 응답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교육생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구분 | 내용 | 인원(명) | 비율(%) |
|-----------|-----------|-------|-------|
| 성별 | 남 | 98 | 64.9 |
| | 여 | 53 | 35.1 |
| 연령 | 20대 | 7 | 4.6 |
| | 30대 | 39 | 25.8 |
| | 40대 | 49 | 32.5 |
| | 50대 이상 | 56 | 37.1 |
| 직업 | 지도자/심판 | 107 | 70.9 |
| | 선수/학생 | 5 | 3.3 |
| | 행정가 | 21 | 13.9 |
| | 기타 | 18 | 11.9 |
| 심판자격 취득여부 | 국내심판 | 44 | 29.1 |
| | 국제심판 | 78 | 51.7 |
| | 미취득 | 29 | 19.2 |
| 활동기간 | 1년 미만 | 1 | 0.7 |
| | 1~3년 미만 | 15 | 9.9 |
| | 3~5년 미만 | 19 | 12.6 |
| | 5~10년 미만 | 26 | 17.2 |
| | 10~15년 미만 | 32 | 21.2 |
| | 15년 이상 | 58 | 38.4 |

설문조사 항목 및 문항은 선행연구결과 및 국제심판 관련 주요 이해관계자인 국제심판 자격취득자, 종목별 단체 국제심판 업무 담당자 대상 전문가 집단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개발하였다. 교육생들의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 문항 구성 및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조사 항목 및 문항 구성

| 구분 | 내용 | 문항수 |
|---------|---|-----|
| 인구통계 특성 | 성별, 연령, 직업, 국제심판 자격취득 여부, 담당 종목 활동기간 | 5개 |
| 교육환경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심판 관련 교육, 타 기관 심판 관련 교육, 선호교육 시기 등 | 13개 |
| 교육요구 분석 | 글로벌 스포츠외교 역량(5개), 스포츠리더십(4개), 심판능력향상(8개) | 17개 |
| 제도개선 | 정책적 개선 필요부분 및 기타 제도적 개선 | 2개 |
| 계 | | 37개 |

또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및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요구분석은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격차와 그 원인을 규명하고, 미래의 행동을 위한 우선순위를 찾는 체계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요구분석은 요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프로그램 개발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자원 배치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다.

본 설문조사 분석에 활용할 Borich 요구분석은 중요성과 현재 수준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각 설문항목별 중요성에서 현재수준을 차감하고, 중요성 평균을 곱하여 산출한다(Borich, 1980). 종래의 수요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설문문항의 응답평균과 응답비율 결과에 기초하여 요구도가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을 나열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인데 비해 Borich 요구분석은 요구의 우선순위를 보다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순양, 정기우, 2012).

마지막으로 국제심판 양성사업 개선에 대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스포츠 정책 전문가들과 논의 후 관련내용을 기술하였다.

Ⅲ. 국제심판 양성사업 운영실태 분석

국제심판 양성사업은 차세대 체육인재 경력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심판은 언어, 체력, 규정 이해도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국제대회 심판경력과 심판능력에 대한 기존 심판들의 정성평가, 구전, 개인의 커리어에 대한 평가 등이 중요하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에 맞춘 국제심판 자질함양 및 전문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지원과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 문헌조사 결과 및 시사점

국제심판 자격취득 과정은 <표 3>과 같이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의 국제심판 자격취득 뿐만 아니라 승급, 유지를 위해 종목별 국제경기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강습회, 테스트, 대회, 세미나 참가 희망을 원하는 심판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심판(Referee, Jury, Umpire, Official) 및 기술위원(Technical Director, Delegate, Evaluator)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자체 종목별 단체에서 양성 중인 축구, 장애인종목과 더불어 국제심판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 태권도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지원내역은 강습회 참가를 위한 항공료 및 체재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직전연도 지원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 지원을 받았으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꾸준하게 심판 경험을 축적한 국제심판 유경험자는 매년 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표 3.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지원 개요

| 구분 | 내용 |
|------|----------------------------------|
| 모집인원 | 최대 35명 |
| 모집대상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심판 자격취득 해외강습회 참가 희망자 |
| 선발절차 | 공개모집 → 서류검토 → 면접심사 |
| 선발시기 | 매월 선발 (경력, 강습회 수준, 자격 수준 등) |
| 지원내용 | 국제경기연맹(IF) 주관 자격취득 해외강습회 참가비 지원 |
| 지원내역 | 항공료 및 체재비(1인당 300만원 이내) |

<표 4>와 같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총 누적인원 393명이 해외강습회 지원을 받았으며, 매년 한정된 예산에 따라 모집인원(35명)이 정해진 관계로 해외강습회 참여인원은 편차가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집인원에 비해 참여인원이 초과하는 연도의 경우에는 해외강습회가 개최되는 국가에 따라 항공료 및 체재비 소요금액이 해외강습회 지원

표 4. 연도별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참여인원 (단위: 명)

| '09~'14 | '15 | '16 | '17 | '18 | '19 | 계 |
|---------|-----|-----|-----|-----|-----|-----|
| 201 | 34 | 41 | 41 | 40 | 36 | 393 |

금액(300만원)보다 적은 국가위주로 참여인원을 선발하였기 때문에 풀이된다.

<표 5>에 나타난 국제심판 종목별 해외강습회 참여 누적인원을 보면 레슬링, 스키, 체조, 탁구, 유도 5개 종목이 전체 38개 종목 중 40.7%를 차지하여 일부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확연하게 나타났다. 해외강습회 누적인원은 종목당 평균 10명이며, 평균 인원을 상회하는 종목은 13개 종목인데 비해 평균 인원을 하회하는 종목은 공수도, 농구, 배구 외 25개 종목으로 분석되었다. 즉, 해외강습회 지원이 종목별로 균형 있게 지원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5. 국제심판 종목별 해외강습회 참여 누적인원 (단위: 명)

| 종목 | 인원 | 종목 | 인원 |
|-------|----|----------|----|
| 공수도 | 13 | 인라인 | 2 |
| 농구 | 7 | 조정 | 5 |
| 레슬링 | 46 | 체조 | 29 |
| 배구 | 6 | 카누 | 2 |
| 배드민턴 | 1 | 컬링 | 15 |
| 복싱 | 7 | 탁구 | 28 |
| 봅슬레이 | 1 | 태권도 | 6 |
| 빙상 | 22 | 테니스 | 24 |
| 소프트볼 | 4 | 트라이애슬론 | 13 |
| 수영 | 17 | 펜싱 | 2 |
| 스켈레톤 | 2 | 하키 | 1 |
| 스키 | 32 | 핸드볼 | 9 |
| 승마 | 13 | 장애인농구 | 5 |
| 아이스하키 | 8 | 장애인럭비 | 4 |
| 양궁 | 3 | 장애인배구 | 1 |
| 역도 | 2 | 장애인사격 | 6 |
| 요트 | 5 | 장애인아이스하키 | 3 |
| 우슈 | 18 | 장애인조정 | 2 |
| 유도 | 25 | 장애인컬링 | 3 |

※ 2019. 12월말 현재, 종목별 가나다 순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심판 양성인원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지원에 참여

한 누적인원은 393명인데 비해 국제심판 자격 신규 취득 누적인원은 145명으로 매년 평균 약 13명이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국제심판 자격 승급 누적인원은 75명으로 매년 평균 약 7명이 심판 자격 승급을 하고 있으며, 국제심판 자격유지 인원도 신규 자격취득 인원 못지않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제심판에 대한 해외강습회 지원이 국제심판 자격 취득인원에 따른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승급인원에 따른 질적 향상도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심판 양성사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지원을 통해 핸드볼, 탁구, 수영, 테니스, 레슬링, 체조 종목에서 총 12명이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하여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심판으로 활동하였는데 국가 주도적으로 국제심판을 양성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임을 시사한다.

표 6. 2019년 기준 국제심판 자격취득, 유지, 승급 누적인원 (단위: 명)

| 구분 | 취득 | 유지 | 승급 | 탈락 | 계 |
|----|-----|-----|----|----|-----|
| 인원 | 145 | 146 | 75 | 27 | 393 |

한편,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정식종목 국제 및 국내심판을 대상으로 <표 7>과 같이 역량교육, 영어교육,

표 7.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요

| 구분 | 국제심판 | 국내심판 |
|----------|------------------|---------------|
| 선발(인원) | 4~5월(20명) | 6~7월(15명) |
| 교육 운영 | 역량교육 | 6~11월(100시간) |
| | 영어교육 | 8~9월(50시간) |
| 워크숍/해외연수 | 6~11월(집체·전화·온라인) | 8~11월(전화·온라인) |
| | 11~12월 | 11월(워크숍) |

해외실무연수, 통합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량교육은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차세대 국제심판 진출을 원하는 국내심판 과정과 현 국제심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심판 자격 유지 및 승급과정과 분리 · 운영하고 있다. 영어교육은 수도권 거주자 대상 수준별 기초영어 및 스포츠 관련 회화, 주요 표현 등 습득을 위해 수준별 2~3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영어교육은 수도권 외 거주자, 영어 상급자, 단체 재직자 등 교육대상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다. 조지움, 신재휴(2014)에 따르면 일본축구는 우수심판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장기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국제심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있는데 그만큼 국제심판 교육에 있어 영어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온라인교육의 경우 스포츠영어 온라인과정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한 시간에 접속하여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2~3개월 기간을 두고 교육생에게 제공되었다. 한편 해외실무연수는 국제스포츠 기구 및 경기현장 탐방을 통한 선진사례 조사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워크숍은 교육생 및 수료생 대상 네트워킹 기회와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의 참여인원은 총 167명으로 <표 8>과 같다. 이 중에서 피겨스케이팅, 스노보드,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의 교육생 3명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국제심판으로 활약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 누적 참여인원을 38개 종목별로 살펴보면 탁구, 농구, 루지, 레슬링, 조정 5개 종목 출신 교육생이 약 40%로 교육생의 다수인

표 8.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 종목별 누적 참여인원 (단위: 명)

| 종목 | 인원 | 종목 | 인원 |
|-----------|----|--------|----|
| 골프 | 1 | 아이스하키 | 5 |
| 근대5종 | 1 | 양궁 | 3 |
| 남자축구 | 7 | 여자축구 | 4 |
| 농구 | 12 | 유도 | 1 |
| 다이빙 | 2 | 육상 | 1 |
| 럭비 | 3 | 요트 | 3 |
| 레슬링 | 10 | 자전거 | 3 |
| 루지 | 10 | 조정 | 3 |
| 배구 | 6 | 철인3종 | 10 |
| 배드민턴 | 2 | 체조 | 6 |
| 복싱 | 8 | 컬링 | 1 |
| 봅슬레이/스켈레톤 | 6 | 탁구 | 25 |
| 사격 | 2 | 태권도 | 7 |
| 쇼트트랙 | 1 | 테니스 | 2 |
| 수영 | 6 | 피겨스케이팅 | 5 |
| 수영(아티스틱) | 1 | 펜싱 | 1 |
| 스노보드 | 4 | 하키 | 1 |
| 스피드스케이팅 | 1 | 핸드볼 | 1 |
| 스키 | 1 | 휠체어럭비 | 1 |

※ 2019. 12월말 현재, 종목별 가나다순

원을 차지하여 종목별로 참여인원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 평균 참여인원은 4명이며, 평균 참여인원을 상회하는 종목은 16개 종목, 평균 참여인원을 하회하는 종목은 22개 종목이었다. 교육생이 한 명도 없는 종목별 단체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대해 대한체육회 및 종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국제심판 양성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환경, 교육요구분석, 정책적 · 제도개선 사항 순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환경에 있어 국제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정의 참석여부는 '있다가 93명(61.6%), '없다가 58명(38.4%)로 나타났으며, 교육과정에 참석한 적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족한다' 이상이 61명(65.6%)로 나타나 국제심판 양성교육에 비교적 높은 만족도 비율을 보이고 있다.

타 기관 주관 국제심판 관련 교육 참석여부는 '있다가 84명(55.6%), '없다가 67명(44.4%)로 나타났으며, '있다고 응답한 대부분이 종목별 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과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상임심판 대상 클린 심판 아카데미에 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선호하는 교육 시기는 4/4분기 51명(33.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선호하는 교육 장소는 서울 74명(49%), 지역 65명(43%)으로 분석되었다.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한 혼합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66명(43.7%)으로 나타나 집합교육 62명(41.1%)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호하는 교육장소로 서울과 지역으로 양분되는 응답결과를 고려하면, 지역에서 국제심판 관련 교육 수요가 높으며, 이에 따라 집체교육이 갖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 접근의 편의성을 갖춘 온라인교육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선호하는 학습기법은 강의 77명(21.0%), 롤 플레이 76명(20.7%), 토의 73명(19.9%), 실습 70명(19.1%)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교습방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심판 관련 교육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소 76명(21.8%), 교재 68명(19.5%)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제심판 교육은 강의중심이 아니라 심판 간 토의, 실습, 역할극을 통해 국제경기대회에 정확한 판정에 도움이 되는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국제심판 관련 교육 시 강화가 필요한 교육 내용은 선진국 현장견학 107명(21.7%), 국제심판 커리어 관리 및 리더십/소양 84명(17.1%), 스포츠 외교 및 정책 이해 74명(15%)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교육 중 온라인 교육(이러닝 등)운영이 필요한 교육부분은 경기상황에서의 갈등관리 및 문제해결, 협상능력 52명(36.6%), 스포츠 외교 및 정책 이해 47명(33.1%), 수준별 외국어 교육 38명(26.8%)으로 조사되었다.

교육 내용에 대한 Borich 요구도 분석 결과, Borich 요구도 점수가 3점 이상인 항목은 ①영어 및 외국어 활용능력(4.99점), ②국제연맹 내 개인적 네트워크 구축능력(4.23점), ③외국어 활용 스포츠 프리젠테이션 스킬(3.91점), ④국제스포츠 동향 및 스포츠 외교의 현장 실천방안 이해(3.67점), ⑤스포츠선진국 현장실습을 통한 국제심판 노하우 및 경험 습득(3.27점), ⑥국제심판으로서의 역할 이해 및 평판 관리, 경력 관리 방법 이해(3.23점) 순으로 산출되었다. 영어 등 외국어 교육, 국제심판의 자질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을 공통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9. Borich 요구도 기반 우선순위 분석 결과
(단위: 점)

| 요구 순위 | 중요도 | 현재 수준 | GAP (중요도-현재수준) | Borich 요구도 (GAP×중요도 평균) |
|-------|------|-------|----------------|-------------------------|
| ① | 4.09 | 2.84 | 1.25 | 4.99 |
| ② | 4.08 | 3.02 | 1.06 | 4.23 |
| ③ | 3.87 | 2.89 | 0.99 | 3.91 |
| ④ | 3.95 | 3.03 | 0.91 | 3.67 |
| ⑤ | 3.99 | 3.17 | 0.83 | 3.27 |
| ⑥ | 4.10 | 3.29 | 0.81 | 3.23 |

* Borich 요구도 3점 이상, 중요도 평균 3.99점

정책적, 제도적 개선사항으로는 국제심판 자격 취득, 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 강화 113명(17.2%), 국제심판 활동의 사후관리 및 지원 강화 103명(15.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 정책적, 제도적 개선사항 설문 응답결과

| 번호 | 내용 | 인원(명) | 비율(%) |
|----|-----------------------------|-------|-------|
| 1 | 국제심판 자격 취득·유지를 위한 재정적 지원 강화 | 113 | 17.2 |
| 2 | 국제심판 활동이 사후관리 및 지원 강화 | 103 | 15.6 |
| 3 | 국내에 국제심판 자격증 활용 확대 | 102 | 15.5 |
| 4 | 종목별 국제심판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조직 구축 | 83 | 12.6 |
| 5 | 종목단체의 국제심판 선정 객관성, 공정성 강화 | 76 | 11.5 |
| 6 | 젊은 심판 참가자 대상 확대 | 72 | 10.9 |
| 7 | 심판의 윤리인식 강화 | 52 | 7.9 |
| 8 | 여성 인재의 활용 확대 | 38 | 5.8 |
| 9 | 생활체육 인프라 강화 | 20 | 3.0 |
| | 합계 | 659 | 100 |

※ 중복응답 포함

3. 전문가 집단 인터뷰 결과 및 시사점

국제심판 자격취득에 대한 개선사항으로는 종목별 단체의 국제심판 활동 인식 및 처우개선, 외국어 활용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능력 개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목별 단체의 국제심판 활동 인식 및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국제심판 활동의 중요성에 비해 종목별 단체 담당자의 인식 부족, 국제심판 자격취득 및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미비, 국제심판이 되더라도 국내심판 활동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심판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종목별 연맹은 국제심판의 중요성에 대

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국제심판 자격취득 및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이를 제공해주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고 연맹에서도 국제심판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기존 관행에 의하여 어렵게 국제심판이 되더라도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지속적인 활동기회도 보장되지 않아요.

또한 국제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 및 외국어 능력 개발, 국제경기 규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국제경기연맹(IF) 내 주요인사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심판의 경우 자격 취득 및 업무수행 전 반에 걸쳐 영어 등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인데, 대부분 국제심판에 참가하신 분들이 경기인 출신인데 외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어요.

수시로 변경되는 국제경기규칙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하며, 종목별 세계연맹 내 주요 인사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매우 중요해요.

국제심판 역량강화에 관한 개선사항으로는 국제심판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국제심판 자격취득자에 대한 국내외 심판 활동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국제심판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와 관련하여 국제대회는 대부분 미국과 북미지역, 유럽지역에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항공요금, 체류비 등 재정 부담을 안고 국제대회 심판으로 참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종목 단체에서 개최하는 대회가 거의 없는 경우 해외 파견을 나가 국제심판 경험을 쌓으려고 해도 재정지원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국제심판이 활동 시 자비로 경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재정 부담이 큼니다.

특히 국내 연맹에서 대회가 자주 없는 경우 심판 경험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해외 파견을 나가려고 해도 재정적 지원이 없다보니 힘든 경우가 많아요. 일부 종목에 따라 연맹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인원대비 지원액은 미미한 경우가 많아요.

국제심판의 자격 취득, 유지, 승급 관련 투입된 많은 노력에 비해 실제 심판을 수행하며 받게 되는 심판 수당, 활동비 등 재정적 보상 혜택이 낮은 경우가 많고,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도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자격취득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어렵게 개인적인 투자를 통해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해도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편이며, 국제심판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편이에요.

국제심판 자격 취득자들에게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국내외 심판 활동기회를 좀 더 보장하고 국제심판 자격취득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비경기인 출신은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해도 국내 경기대회에서 심판으로 배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IV.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국제심판 양성사업 체계 개선, 국제심판 국내

활동 기회 확대, 국제심판 인재저변 확대, 국제심판 자격관련 재정지원 강화, 국제심판 통합관리 전문조직 창설 측면에서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국제심판 양성사업 체계 개선

우리나라 국제심판 수는 2007년 3,959명에서 2017년 3,663명으로 296명이 감소(문화체육관광부, 2019)하였으며, 국제심판 해외강습회 지원의 경우 구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회성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인식부족으로 특정종목에 참가자가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심판 교육에 대한 개선사항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혼합 교육에 대한 요구(43.7%)가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 집단 인터뷰 결과, 종목별 단체별로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자료수집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정보취합 및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상기에서 언급된 국제심판 양성인원 감소, 해외강습회 지원에 대한 세부평가 부재, 특정종목에 대한 심판교육 참가자 편중 등은 아래와 같이 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종목별 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국제심판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국제심판 취득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해외강습회 및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 심판협회 NASO(National Association of Sports Officials, 2020)는 국제심판 협회로 심판관련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나다 심판협회 SOC(Sports Officials Canada, 2020)는 국제심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둘째, 국제심판 양성사업에 대한 효과성 검증 및 질적 개선을 위해 교육생 만족도 조사 외에 학업성취도 평가, 역량향상도 및 현업적응도 평가로 이루어진 세분화된 평가체계를 운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과 교육생 사후관리에 있어 내실을 기해야 한다. 또한 교육방법 측면에서도 집체교육 중심에서 교육생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교육을 추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국제심판들의 활동내역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국제심판 자격취득 지원자에 대한 경력 및 활동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생 모집 및 선발에 대한 공정성 및 합리성을 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스포츠인재양성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종목별 단체 담당자가 국제심판의 경력 및 활동사항을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추후 국제심판이 개별적으로 정기적인 활동내역을 기록하도록 하고, 종목별 단체 및 유관기관이 국제심판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2. 국제심판 국내 활동기회 확대

앞선 전문가 집단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국제심판의 전문성 및 자격 취득과정에 기울인 노력에 비해 국제심판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 인지도는 낮은 편이며, 국내심판으로 활동하는 기회도 제한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국제심판이

국내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심판의 경기운영 능력 및 역량 향상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비선수 출신 심판의 경우 심판 활동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체육회 및 산하 종목별 단체의 국제심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종목 단체별로 국제심판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 상임심판은 종목별 단체 심판 교육을 담당하고 심판들의 권익을 대변하며 국내 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등 주요대회 심판활동, 대한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심판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심판위원회 규정(대한체육회, 2020)을 살펴보면 상임심판활동 시의 혜택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한체육회 주관 심판 아카데미 이수자에 대해 체육단체 역할 분장 시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제18조), 심판배정은 각 종목단체 심판위원회 결정으로 진행되며, 체육회 승인 상임심판, 체육회 주관 심판 심화교육 및 양성교육 이수 심판 순으로 우선 배정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제22조). 또한 평가 및 교육 우수 심판에 대해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종목단체 국제기구 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제26조).

상기 심판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여 국제심판 자격 보유자에 대해 국내 상임심판 임용, 국내 주요대회 심판 배정 시 가점부여, 국내에서 개최되는 종목별 국제대회 심판 우선 배정 등을 통해 국제심판의 국내 활동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와 협의를 통해 종목별 단체의 심판 관련 사업에

산 배분 시 국제심판 자격 취득인원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국제심판 자격취득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국제심판 인재저변 확대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제심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양적 저변 확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 인터뷰 결과에서는 국제심판 지원 대상자는 선수, 지도자 출신만 해당된다는 선입견이 팽배해 있으며, 스포츠 선진국에 비해 특히 젊은 층과 여성에 대한 국제심판 양성전략이 미미하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국제심판의 양적 저변 확대를 위해 유능한 젊은 인재와 여성 인재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국제탁구연맹(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 2020)은 ‘젊은 국제심판 양성 프로젝트(Young Umpire Project)’를 통해 16세부터 30세 사이 젊은 국제심판 인재양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발된 젊은 심판은 윤리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대회 배정을 우선적으로 주선받아 우수한 국제심판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포츠선진국 호주의 경우에는 주요 종목별 협회에서 심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유소년 심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유소년 심판에 대해 유니폼 지급, 체력 관리, 경기관람, 세미나 참가 등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두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17). 한국 심판의 장기적인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의 젊은 국제심판을 발굴, 육성해야 한다. 국내의 젊은 심판을 발굴하려면 심판이 될 수 있는 전문성 및 자

질을 겸비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을 타깃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광고가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젊은 층에게 국제심판 자격취득에 대한 관심과 지원 동기를 촉진하기 위한 학점인정 연계, 국가 자격증 취득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발굴한 젊은 심판들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에서의 심판 경험을 우선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아시아 및 국제경기연맹과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 스포츠인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 인재를 활용하여 현재 국제심판의 풀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맹이섭, 이완영(201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여성스포츠인의 지위상승 장애요인은 스포츠 영역에서의 남성위주의 조직문화, 스포츠계의 낮은 여성임원 비율, 여성들의 의사결정권 부족, 부족한 인적 네트워크, 정보의 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심판의 경우 임금 수준은 높지 않으나 명예직으로 활동하며 보람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풀타임으로 활동하는 감독, 코치, 지도자에 비해 국제심판 직무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다. 특히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후 경력 복귀에 적합한 직업으로 판단되며, 경기인 출신이나 체육계열 전공 여성을 대상으로 국제심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나가야 한다.

4. 국제심판 자격관련 재정지원 강화

앞선 전문가 집단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국제심판 자격취득 후 심판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국제심판은 국내심판에 비하여 언어교육, 심판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재정적, 시간적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대부분 종목의 경우 명예 이외 재정적 보상은 낮아 국내심판이 국제심판 자격 취득 자체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제심판 관련 정책적 개선사항에 대한 교육생 설문조사에서도 국제심판 자격 취득, 유지, 승급활동을 위한 해외강습회 참여에 대해 재정적 지원 필요가 높게 나타나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냈다.

국제심판에 대한 활동내역 및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국제경기 심판 활동이나 세미나 등 참석을 위해 해외 체류 시 특정 업체와의 제휴 등을 통해 재정지원의 일환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캐나다 심판지원 기관인 Sports Officials Canada(2020)는 가입한 심판 회원에게 호텔, 렌터카, 보험사 등의 제휴 할인을 제공하고 모든 심판미팅에 초청받을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하고 있다. 현행 재정지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국제심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재정지원의 효율화 측면에서 전략종목, 기초종목, 비인기종목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국제심판 유지 및 승급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검토해 볼 수 있다. 88서울올림픽 이후, 우리나라는 스포츠강국으로서 전 세계인들에게 인정받고 있으나, 일부 편중된 스포츠 종목에만 의존한 채 육상, 수영, 체조 등 기초종목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하계올림픽이나 동계올림픽 역시 특정 종목과 귀화선수 수급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를 반영하듯 2016년 브라질 리우하계올림픽대회에서는 한국의 고질적인

메달편식 현상이 나타나 획득한 금메달 중 절반 가까이가 양궁에서만 획득된 반면, 영국, 일본, 중국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기초종목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추진하여 매우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전략종목 다변화와 체계적인 기초종목 육성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전략은 향후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의 국가 성패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한정된 국제심판자격에 대한 재정지원도 전략종목과 기초종목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실질적인 성과창출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5. 국제심판 통합관리 전문조직 창설

국제심판 자격취득 절차 및 자격 유지 조건은 종목별로 매우 상이하며 국제규정 변경 및 국제심판 관련 공지사항을 종목별 협회가 아닌 개인별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목별 단체는 국내 업무 지원 및 국제대회 선수단 파견 지원으로 국제심판과 관련한 별도의 계획이나 예산을 편성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다. 국제심판 양성사업에 대한 개선방향 관련 전문가 집단 인터뷰 및 교육생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심판양성 및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전문조직 창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제심판 자격 관련 재정지원 강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이 표출되었다.

국제심판 통합지원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목별 단체의 국제심판 업무 담당자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국제심판을 관리하고, 국제규정의 변화를 감지하여 빠르게 전달, 배포, 교육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

하다. 미국 심판지원 기관 ArbiterSports(2020)는 학교 및 종목별 협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심판 배정 및 관리, 최신 규정에 대한 교육, 심판 수당 지급 등 종합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심판과 관련한 정확한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관련하여 방열(2004)과 홍선희, 하숙례(2018)는 전문적으로 새로운 심판을 양성하고, 기존 심판에 대한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상설 교육기관인 '심판학교' 개설을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국제심판 양성 교육 전문가인 '한국 국제심판학교'(가칭) 설립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국제심판 관련 종합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생 모집 및 홍보, 전문 강사 확보 및 양성을 전담하는 통합관리 전문조직이 창설되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 하는 데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심판 양성사업 관련 문헌조사, 전문가 집단 인터뷰, 교육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제점 도출 및 분석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이 수립되었다.

첫째,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국제심판 관리 및 지원체계 일원화,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관리 평가체계 구축 및 교육생 사후관리 내실화, 국제심판 활동내역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국제 심판의 국내 활동 기회를 확대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심판에 대한 국내 활동 시 심판 배정의 우선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심판 자격취득 인원에 따라 종목별 단체의 심판 관련 사업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등 제도적인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국제심판 인재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젊은 인재 및 여성 인재에 대해 국제심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유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국제심판 자격관련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심판 자격 취득 후 소요되는 활동비에 대한 개인 비용 부담에 대해 사후관리 차원에서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전략종목 및 기초종목에 대한 자격취득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심판 통합관리를 위한 전문조직 창설이 요구된다. 국제심판 관련 종합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교육생 모집 및 홍보, 전문 강사 확보 및 양성을 전담하는 통합관리 전문조직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국제심판 양성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중 일부는 온라인교육 영상 콘텐츠로 전환하고, 국제심판의 자격취득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심판 가이드북 제작에 적극 착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체육진흥공단(2017). **2017 국제심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국민체육진흥공단(2020a). **2009-2019년 국제심**

판 양성사업 추진실적.

국민체육진흥공단(2020b). **2020 종합업무현황**.

김미숙(2014). **국제심판 양성방안**. 한국스포츠 개발원.

김미숙, 김일광, 전상완(2017). 대한체육회 상임 심판 운영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지**, 16(3), 487-495.

김미숙, 전상완(2019). 대한장애인체육회 상임 심판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한국체육학회지**, 58(4), 397-410.

김상겸, 문재태(2014). 헌법상 스포츠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17(2), 71-99.

김순양, 전기우(2012). 우리나라 교육불평등 대처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한 Borich 요구도 분석(Needs Analysis). **한국정책연구**, 12(3), 15-45.

김진세, 안재환, 김미숙(2017). 체육인재의 경력 유형별 융합적 역량모델 개발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지**, 15(8), 423-433.

김형환, 양대승, 심영균(2018). 태권도 상임심판제도의 개선방안. **국기원 태권도연구**, 9(3), 59-75.

대한체육회(2020). **심판위원회 규정**.

맹이섭, 이완영(2017). 여성스포츠인의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6(5), 119-129.

문원제, 정국현(2005). 태권도 심판의 판정 결정요인에 대한 문화기술학적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7(4), 59-72.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7 체육백서**.

박찬혁, 정민규, 윤호천(2004). 태권도 심판의

판정 결정요인에 대한 문화기술학적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9(2), 199-208.

방열(2004). 한국 프로농구의 심판문제 및 그 개선방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1(2), 159-175.

이재봉(2017). 수요자 중심의 겨루기 심판교육 개선방안. **한국스포츠학회지**, 15(4), 695-702.

이학준(2006). 심판오심과 도덕적 책임. **한국체육학회지**, 45(6), 81-89.

장연환, 박정근(2016). 한국 축구심판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코칭능력개발지**, 18(2), 55-65.

정현도(2011). 태권도 국제심판의 심판판정 인식에 관한 비교 연구. **국기원 태권도 연구**, 2(2), 97-108.

조지음, 신재휴(2014). 한국 축구심판 양성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2(4), 97-112.

홍선희, 허숙례(2018). 농구 경기심판의 자질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한국스포츠학회지**, 16(1), 529-542.

ArbiterSports(2020). <http://www.arbitersports.com/>

Borich, G. D. (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1), 39-42.

International Table Tennis Federation(2020). <https://www.ittfeducation.com/moodle/course/index.php?categoryid=12>.

National Association of Sports Officials(2020). <https://www.naso.org/>.

Sports Officials Canada(2020). <https://athletics.ca/programs/officials/>.

논문투고일 : 2020년 7월 14일
 논문심사일 : 2020년 7월 22일
 게재확정일 : 2020년 8월 20일

ABSTRACT

A Study on Policy Plans to Improve International Referees Fostering Project

Kim, Jin-Se(Korea University)•

Kim, Dae-Hee(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up and analyze the problems of the international referees fostering project and make policy plans to improve them.

The international referee fostering project was started to expand the influence in international sports competitions and to minimize the disadvantages of Korean athletes due to foreign referees' biased or wrong judgement. In order to achieve this, literature research, completion students survey and expert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Policy plans for international referees fostering project we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the international referees fostering project. Second, it is definitely needed to expand international referees' assignment to domestic matches. Third, we should raise awareness of international referees and expand the base of the talented. Fourth, financial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in terms of post management related to international referees' qualification acquisition. Fifth, it is required to establish professional organization that can provide comprehensive information services for international referees, develop and operate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recruit and nurture potential students, secure and train professional instructors.

In preparation for post COVID-19 era, the introduction of online education and the production of international referees guidebooks to share knowhow among referees should also be promoted.

Key words : International Referees, International Referees Fostering Project